

교차로

승가

은관 문화훈장 받아

만봉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20일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98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전통단청과 불화의 전승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인 정몽 회생자 위령제

태연 재일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장은 25일 일본 교토 고리사에서 강제징용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국난극복 수륙 방생법회

필파 통도사 주지는 17일 하동 삼진강 송림에서 경남 일원의 불자 3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난극복을 위한 수륙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책 읽는...' 추진위 고문예

법타 은혜사 주지는 24일 책 읽는 교육사회 실천협의회 추진위원회 고문에 위촉됐다. 스님은 교육계와 출판계 인사들과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운동을 펼치게 된다.

영기천도 만등불사 봉행

해충 감로사 주지는 28일 영가천도를 위한 삼천불전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등명라기사 일주문 상량

청유 등명라기사 주지는 20일 신도와 지역 기관장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은 내년 부처님 오신날 거행할 예정이다.

수련원 기금마련 서도전

정여 보현선원 주지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전시실에서 어린이수련원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서도전을 개최한다.

경제난 극복 기원법회

덕수 삼광사 주지는 11월 1일 삼광사 창립 29주년 기념 경제난 극복과 국민회합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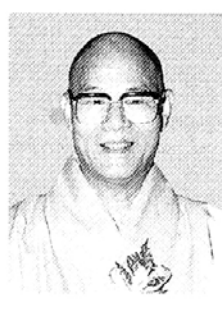
교보환경문화상 수상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대표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교보환경문화상 사회교육분야 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구에 대곡학당 개원

돈관 한국불교사회연구원 부설 경북불교대학장은 18일 대구시 상인동 대곡지구에 대곡학당을 개원했다.

녹원스님 日 용곡대사 명예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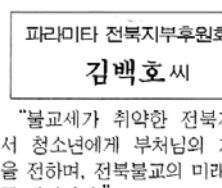
오죽원 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은 일본 용곡대(龍谷大)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9일 교토(京都)로 출국한다. 녹원스님의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용곡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학위로는 중국 자오푸추(趙朴初) 중국불교 협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 학위수여식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 홍윤식 문화예술대학원장, 법산 불교대학장, 송재은 재단사무처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민생안정·민족통일 염원"



매일 3회 1백일기도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경제난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민심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사회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세워 민생안정과 종단화합, 나아가 민족통일까지 염원하기 위해 기도 시작합니다." 이원호 기자 (yhyee@buddhapia.com)

"사찰·학교 자매결연 추진"



파라미타 전북지부후원회 회장 김백호씨 "불교세가 취약한 전북지역에서 청소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전북불교의 미래를 가꿀 것입니다." 파라미타 전북지부(지부장 도영스님) 후원회 초대 회장을 맡은 김백호씨(67세·우미건설 대표)의 말이다. 오종욱 기자

"존경하던 은사 다시 뵈는 듯"

화갑맞아 기산선사 범어집 펴낸 한정섭 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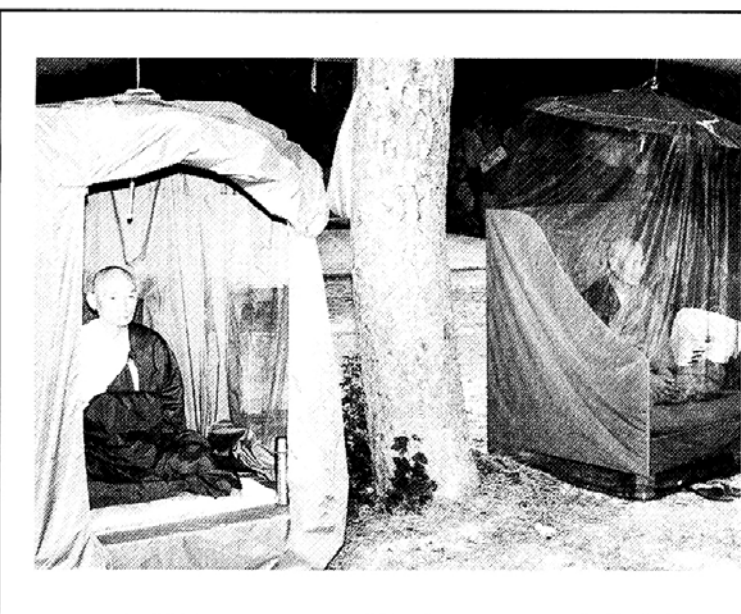
"30여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보람을 느낍니다. 남은 날들도 불교발전을 위해 바칠 각오입니다." 한국불교 대중화와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온 한국불교금강선원 한정섭 이사장은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신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들이 마련해 준 '기산 임석진 대종사 범어집' 발간법회에서 깊은 감회에 젖었다. 65년 가평에 상락할 수 도원 창건을 시작으로 도사출판 불교통신교육원과 한국불교통신대학, 한국불교정신문화원 등을 설립해 포교와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쳐왔기 때문이다. "기산선사는 제 은사입니다. 54년 대한불교 중앙총무원 한병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파라미타 활동 배우고 싶어"

태국 담아가야재단 소마이 콘사쿠위원장



"한국불교의 활발한 청소년포교와 언론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조직과 활동 경향을 배우고 싶습니다." 16~17일 한국을 방문. 조계종 포교원과 사회부, 대법청 관계자들을 만나 한-태 불교교류를 논의하고 돌아간 태국 담아가야재단의 국제 청년운리위원장 소마이 콘사쿠는 두 나라 불교단체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마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첫 방한이지만 한국불교에 친근감을 느꼈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절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한국불교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담아가야재단은 태국의 불사, 청소년교육, 수행 단체로 미국 호주 벨기에 등 세계 8개국에 지부와 명상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태종사 스님들 7일간의 두타행

탐심이 없고, 쉽게 만족하고... 이 두가지 공덕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두타행.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세간의 즐거움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기위해 부처님 당시 권장했던 두타(두타)가 행해졌다. 두타는 노지에서 지내며 행주좌와 중 놀지않고 수행하며 하루 한끼의 공양을 결식으로 해결하며 세벌의 옷만 사용하는 등 욕심을 버리고 쉽게 민족함을 위한 수행. 도성스님, 우각스님, 진용스님을 비롯한 9명의 수행자는 정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일 1식하며 좌선과 경행을 겸한 24시간 용맹정진으로 7일을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미주 주요사찰 순례법회

박원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9월 13일 하와이 정법사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 씨애플 서머사 등 미주지역 주요사찰 순례법회를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진각종 사강원장에

진산 정사(진각종 경주교구청장)는 22일 30대 사강원장에 선출됐다. 진산정사는 1943년 경북울성군에서 태어나 현재 경주교구청 교구청장, 경주 총원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쌍용양회 사장에

명호군 쌍용화재 사장(만해사 상설헌신양회장)은 21일 쌍용양회 사장 겸 구조조정 실행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日 부시학원高 학생 초청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장은 20일 자매교인 일본 부시학원 고등학교학생 184명을 초청. 우애와 친선을 도모하는 환영회를 가졌다.

이웃돕기 선서회 도지전

최동원 대구광역시신도회장은 21일~24일까지 대구 수성구 우방모델하우스에서 불우이웃돕기 선서회 및 생활도자기전을 개최했다. 수익금은 결식아동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공이민시대' 출판회

민병용 조국경화동일불교협회 이사(한국일보 캐나다본부장)는 22일 한국일보 송년특별에서 미주 이민과 이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성공이민시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조선일보 광고정리성 수상

김형균 동족나라 대표는 제35회 조선일보 광고대상 일반부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장려상 수상작은 최근 발간된 법정스님 수필집 <산에는 꽃이 피네>를 소개한 광고다.

이학승법사 광동여고 교감에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17일 이학승법사(광동학원 교법사)를 광동여고 교감에 임명했다. 종립학교사상 최연소 교감이 된 이학승은 "광동여고가 종립 고교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일조하기 위해 불교교육 및 신행활동을 겸행하는 수석교법사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제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살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축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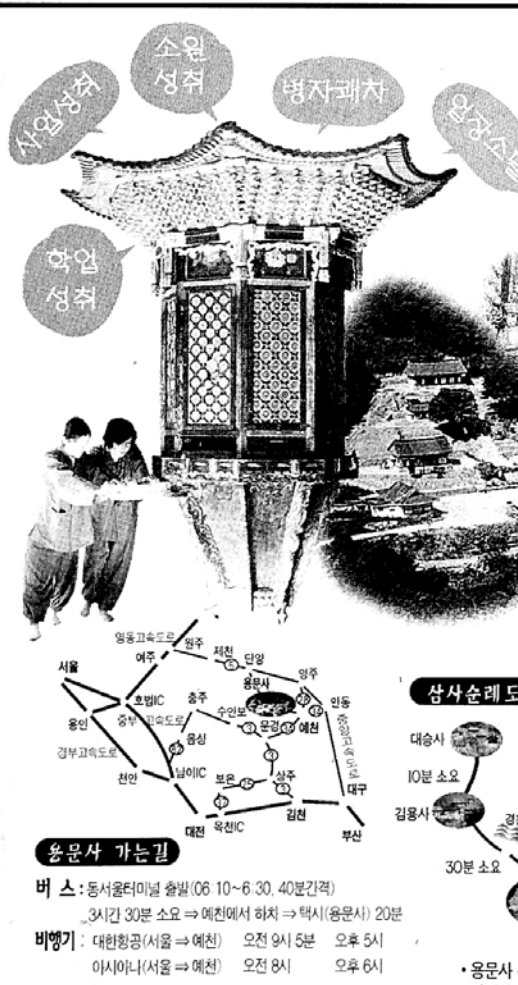
주 지 청 안 합 장

- 입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문사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안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용문사 가는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처량 대형처량 주차 가능